

“월드컵 트로피 꼭 만져보고 싶다”

7월 개막 앞두고 서울서 트로피 공개 행사...여자축구 지소연·최유리 각오 다져



27일 서울 강남구 스타필드 코엑스몰 라이브 플라자에서 열린 2023 국제축구연맹(FIFA) 여자월드컵을 앞두고 열린 우승 트로피 공개 행사에서 내빈들이 트로피를 공개한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대표팀 최유리, 홍은아 대한축구협회 부회장, 사라 강도양 FIFA 사절단 대표, 대표팀 지소연. /연합뉴스

한국 여자 축구대표팀의 '에이스' 지소연(수원 FC)과 최유리(현대제철)가 2023 국제축구연맹(FIFA) 호주·뉴질랜드 월드컵 트로피 앞에서 선전을 다짐했다.

FIFA와 대한축구협회는 27일 서울 강남구 스타필드 코엑스몰 라이브 플라자에서 여자 월드컵 트로피 미디어 공개 행사를 진행했다.

월드컵 우승 트로피는 7월 호주와 뉴질랜드가 공동 개최하는 이번 월드컵에 앞서 32개 참가국을 찾는다.

행사에 참석한 지소연과 최유리는 월드컵 트로피의 실물을 접한 뒤 설레는 마음을 전했다.

지소연은 “트로피를 보니 월드컵이 다가왔다는 게 느껴진다. 눈으로 보는 것뿐 아니라 손으로도 꼭 트로피를 만져보고 싶다”며 의욕을 드러냈다.

최유리도 “월드컵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생각에 트로피를 보자마자 가슴이 뛰고 떨렸다”며 미소를 지었다.

FIFA 랭킹 15위인 한국은 3회 연속이자 통산 4번째로 월드컵 본선에 진출, 조별리그 H조에서

독일(2위), 모로코(76위), 콜롬비아(27위)와 대결한다.

이달 영국에서 열린 아널드 클라크컵에서 영국, 벨기에, 이탈리아를 상대로 3전 전패하며 '예방주사'를 맞은 한국은 4월 국내에서 잠비아와 두 차례 평가전을 통해 월드컵 준비를 이어갈 예정이다.

강팀들과 대결을 마치고 돌아온 지소연은 “시즌 중인 몸 상태의 유럽 선수들을 상대하는 건 버겁기도 했지만, 그 안에서 가능성을 많이 봤다. 우리가 유럽 선수들보다 기술이 많이 떨어지지는 않는다고 생각한다”며 “유럽에는 빠른 스피드로 달릴 수 있는, 최유리 같은 선수가 많아 버거운 면이 있다. 하지만 우리도 시즌에 돌입해 몸 상태를 끌어 올리면 충분히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지소연은 월드컵에서의 목표를 묻자 “롤린 벨 감독님께서 올라갈 수 있을 만큼 올라가는 게 목표라고 하셨다. 콜롬비아전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만큼, 첫 경기를 잘하는 게 목표다. 그 경기를 잘하면 그 다음 경기도 잘 할 수 있을 것이다”며 “카타

르 월드컵에서 황희찬(울버햄프턴) 선수가 골을 넣은 뒤 한 세리머니는 이금민(브라이턴)이 먼저 했다. 여자가 하면 더 멋지지 않을까 싶다”고 골 세리머니 공약을 걸기도 했다.

최유리도 “아널드 클라크컵에서 결과는 좋지 않았지만, 정말 좋은 경험을 했고 많은 것을 배웠다”며 “감독님께서 처음이자 마지막 월드컵일 수 있다는 마음으로 해야 한다고 하셨다. 내게는 이번이 첫 월드컵인데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모든 것을 쏟아붓겠다”고 힘줘 말했다.

이날 함께 자리한 이영표 대한축구협회 부회장은 “기술과 전술이 첫 번째 바탕이 되어야 하지만, 태도나 마음가짐도 상당히 중요하다”며 “상대가 우리보다 얼마나 강한지 알면 준비를 할 수 있다. 얼마나 강한지 모르면 두려움이 증폭돼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못하고 끝나는 경우가 있다. 이번 아널드 클라크컵을 통해 최고 레벨의 선수들이 어느 정도인지 확인했으니 대표팀이 그 차이를 줄일 방법을 찾으면 좋은 경기력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라고 격려했다. /연합뉴스



파리 생제르맹의 리오넬 메시(왼쪽)가 27일 열린 프랑스 리그1 마르세유와 경기에서 팀의 두번째 골을 넣은 뒤 기뻐하고 있다. /연합뉴스

메시, 클럽 통산 700골 대기록

200골 음바페 PSG 득점 공동 1위

프랑스 프로축구 파리 생제르맹(PSG)의 '베테랑 골잡이' 리오넬 메시(36·아르헨티나)와 킬리안 음바페(25·프랑스)가 나란히 새로운 '득점 기록'을 쓰며 팀의 완승을 이끌었다.

PSG는 27일 열린 '라이벌' 마르세유와 2022-2023 프랑스 리그1 25라운드 원정 경기에서 음바페의 2골 1도움과 메시의 1골 2도움을 앞세워 3-0으로 이겼다.

무릎 부상으로 결장한 12일 AS 모나코전을 제외하고 4경기 연속 골 맛을 본 메시는 올 시즌 리그 12호 골을 작성했다.

그는 1-0으로 앞선 전반 29분 음바페가 왼쪽 측면에서 찰랑 찰랑 패스를 문전에서 마무리했다. 이 득점으로 메시는 클럽 통산 700골을 달성하는 진 기록도 남겼다.

메시는 2004년 10월 FC바르셀로나(스페인) 1군에 데뷔한 뒤 17시즌 동안 공식전 778경기를 치르며 672골을 넣었고, 2021년 8월 PSG로 이적한 뒤 62경기를 뛰며 28골을 만들어냈다.

현재 사우디아라비아 알나스르에서 뛰는 크리스티아누 호날두(포르투갈)가 잉글랜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소속이던 지난해 10월 프로 통산 700골을 돌파했는데, 메시도 뒤를 이어 금지탑을 쌓았다.

호날두가 유럽 무대에서 총 701골을 남기고 아시아로 떠난 만큼, 메시가 두 골을 더하면 유럽 내에선 호날두의 기록을 넘게 된다.

또 호날두의 유럽 득점에는 스포르팅(포르투갈)에서 넣은 5골도 포함돼 있어, 범위를 유럽 5대 리그(잉글랜드·스페인·독일·프랑스·이탈리아)로 좁히면 메시가 이미 더 많은 골을 기록했다.

이날 메시와 함께 맹활약한 음바페는 PSG 구단 최다 득점 공동 1위로 이름을 올렸다.

음바페는 전반 25분 선제 결승골을 터뜨렸고, 후반 10분 페널티 지역 왼쪽으로 침투해 눈스톱 안발 슛으로 멀티골을 완성했다. 두 골 모두 메시의 도움을 받은 것이다.

2017-2018시즌 임대로 PSG에서 뛰던 후وان 에릭은 6시즌 간 한 팀에 몸담으며 공식전에서 200골을 넣었다. 200골은 에디손 카바니(발렌시아)가 세운 PSG 구단 최다 득점 기록으로, 음바페가 타이틀 이었다. 올 시즌 리그 16호 골, 17호 골을 연달아 작성한 음바페는 리그 득점 선두도 굳게 지켰다. /연합뉴스

K리그1의 봄...개막 라운드 최다 관중 '10만 1632명'

K리그2 전남 1일 안양과 개막전

기지를 켜 2023시즌 K리그1이 역대 개막 라운드 최다 관중 기록을 세웠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이 “2월 25일과 26일 이틀간 펼쳐진 하나원큐 K리그1 2023 개막 라운드 관중수가 10만 1632명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승강제가 펼쳐진 2013년 이후 K리그1 역대 개막라운드 최다 관중으로 앞서 최다 관중이 기록된 2017시즌 9만 8353명보다 3279명이 더 많은 숫자다.

특히 25일 울산문수구장에서 열린 울산현대와 전북현대의 공식 개막전에서는 코로나19 이후 K리그 한 경기 최다 관중인 2만 8039명이 입장했다.

같은 날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FC서울과 인천유나이티드경기에서는 2만 2204명, 광주FC와 수원삼성이 만난 수원월드컵경기장에는 1만 348명이 경기장을 찾았다.

개막라운드 열기는 26일에도 계속됐다.

제주유나이티드와 수원FC가 격돌한 제주월드컵경기장에 8362명의 관중이 찾았고, 포항스틸러스와 대구FC의 경기가 열린 포항스틸야드에는 1만 4089명이 입장했다.

또 개막 라운드 마지막 경기였던 대전하나시티즌과 강원FC의 경기에도 1만 8590명이 찾으면서



지난 25일 울산현대와 전북현대의 2023시즌 K리그1 공식개막전이 열린 울산문수구장에 코로나19 이후 최다 관중인 2만 8039명이 입장했다. <한국프로축구연맹 제공>

개막 라운드 합계 관중은 10만 1632명을 기록했다.

K리그2는 3월 1일 개막을 앞두고 있다. 주말 열기를 이어 K리그 1·2 개막 라운드 합계 최다 관중 기록을 경신할 수 있을지 눈길이 쏠린다.

앞서 합계 최다 관중 기록은 2017시즌의 13만

4468명(K리그1 9만 8353명, K리그2 3만 6115명)이다.

한편 K리그2의 전남드래곤즈는 3월 1일 오후 1시 30분 광양축구전용구장에서 FC안양을 상대로 2023시즌 개막전을 치른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조코비치, 그라프 넘어 테니스 최장 랭킹 1위

남자 테니스 노바크 조코비치(36·세르비아·사진)가 여자 테니스의 '전설' 슈테피 그라프(54·독일)를 넘어 누적 최장기간 단식 세계랭킹 1위 신 기록을 썼다.

남자프로테니스(ATP) 투어가 27일 발표한 이번 주 세계 랭킹에서 조코비치는 랭킹 포인트 6980점으로 5주 연속 1위를 지켰다.

이로써 조코비치는 누적으로 총 378주간 랭킹 1위에 올라 남녀를 통틀어 이 부문 최고 기록(377주)을 보유하던 그라프를 넘어 전인미답의 고지에 올랐다.

2011년 처음으로 1위에 오른 조코비치는 10년 넘는 시간 동안 토폴레브 선수로 꾸준히 활약한 끝에 금지탑을 세웠다.

조코비치는 올해 호주오픈까지 22차례나 메이저 대회 단식 챔피언에 올라 '라이벌' 라파엘 나달(스페인)과 이 부문 타이 기록을 보유하고 있다.

그라프 역시 생애 22차례 메이저 대회에서 우승했다.

왼쪽 햄스트링 파열 부상을 입고 호주오픈에서 우승한 뒤 잠시 코트를 떠나 회복에 집중하던 조코비치는 이번 주 아랍에미리트에서 진행되는 두바

이 챔피언십에 출전한다.

조코비치는 “남녀를 통틀어 테니스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수 중 하나인 그라프와 어깨를 나란히 한다는 것은 초현실적인 일이다. 전설적인 선수들과 함께 이름이 불리게 돼 영광이다”며 “아직 감각이 완전히 돌아오지는 않았지만, 100%에 가까워지고 있다. 특히, 통증이 더는 없다. 코트에서 움직이는 데 방해되는 게 없다”며 복귀 대회에서의 선전을 자신했다.


한편, 리우오픈에서 준우승한 카를로스 알카라스(스페인)는 조코비치에 200점 뒤진 6780점으로 2위에 자리했다.

결승에서 알카라스에 승리한 케머런 노리(영국)는 12위로 한 계단 올랐다. 권순우(당선시청)는 그대로 68위를 지켰다. /연합뉴스



LOTTE CINEMA | 증장로관

즐거움 문화산책



단체 및 대관문의 1544-8855

1관 엔트맨과 와스프: 퀴텀메이니아, 바다 탐험대 옥토퍼 옥지수호 대작전 : 열대우림을 지켜라!

2관 카운트

3관 서치 2, 네가 떨어뜨린 푸른 하늘

4관 엔트맨과 와스프: 퀴텀메이니아

5관 카운트, 메간


6관 엔트맨과 와스프: 퀴텀메이니아, TAR 타르

9관 서치 2


7관 씨네커플 더 퍼스트 슬램덩크, 영웅, 에메이징 모리스

8관 씨네커플 상견니, 오늘 밤, 세계에서 이 사람이 사라진다 해도, 살수, 교섭

광주문화예술회관 문의 062)613-8233



2023년 국악상설공연
일시 : 2023-03-01(수) ~ 2023-03-31(금)
장소 : 광주공연마루
문의 : 062)613-8379/8372



광주시립창극단 특별공연
국립광주박물관과 함께하는 판소리감상회
일시 : 2023-02-26(일), 2023-03-26(일) 15:00
장소 : 국립광주박물관 대강당
문의 : 062-526-0363